

합격수기로 살펴본 3순환 학습전략

➤ Advice : 1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입니다. 이때부터는 **예습은 하지 않고 시험을 치고,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례형은 전 과목을 문제를 읽고 실전 답안을 외우는 방식으로 복습했습니다. 선택형은 응시할 때도 있었고, 응시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기출문제도 다 못 푼 상태에서 진도별 모의고사 선택형까지 반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시험까지 진도별 모의고사 선택형을 반복한 과목은 없고, **사례형은 전 과목 진도별 모의고사 실전답안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제가 10월 모의고사에서 객관식을 너무 못 보면 변호사시험 때까지 불안함에 시달리면서 갈팡질팡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선택형 기출을 푸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모의고사 직전에 진행된 행정법 진도별 모의고사는 자료만 다운로드 받아 복습하고 학원에 나가지 않은 채 객관식을 계획한 데까지 풀고 모의고사를 치려고 했습니다. 민법은 5개년 회차별, 민사소송법과 상법은 김남훈 변호사님의 핵심지문총정리, 형법은 사례형으로 해결된다는 박사님의 말씀을 믿고 따로 기출을 풀지 않았고, 형사소송법도 따로 기출을 풀지 않고 최신판례를 복습했고, 헌법은 8월 모의고사 전에 들어 둔 OX강의의 문제집, 행정법은 서창교 교수님의 선택형 기출문제집을 풀고 모의고사에 응시했습니다. 101개를 맞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 Advice : 2

8월 말 ~ 10월 중순(3순환):

각 과목 암기장 2회독 + 사례형 실전연습 & 첨삭

기록형 실전연습 & 첨삭

각 과목 객관식 기출 2회독(전개년)

기상스터디

이 시기에는 1순환 과정에서처럼 주5일 매일 진도별 사례형 시험을 치르고 첨삭을 받았습니다. 주말 하루에는 기록형 실전연습과 강평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첨삭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자연스럽게 **모든 과목 암기장의 두 번째 회독을 마쳤고, 10월 모의고사 직전 객관식 기출 역시 두 번째 회독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며 무리를 한 탓인지 이 시기에 몸이 안 좋아져서 한 달 동안 공부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컨디션 관리상 기상스터디는 9월 말까지만 하였습니다.

➤ Advice : 3

가. 3순환(8월 ~ 10월) - 진도별 모의고사 & 기록형 실전연습

8모를 보고 나면 드디어 진모기간이 시작됩니다. **사례형의 경우에는 1순환과 동일하게 100점 단위로 매일 진도별로 시험을 보는 것은 동일하지만, 강의 회차는 줄여들기 때문에(예컨대 1순환 민법이 12회차, 3순환 민법이 9회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할 범위는 더 늘어납니다.** 또한 1순환과 달리 선택형 시험까지 응시를 해야 합니다(사례형 1시간, 선택형 30분). 그래서 **진모기간이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최신판례까지 반영된 문제가 출제되므로 반드시 응시를 해야 합니다.**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는 포기하지 않고 수레에 매달려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가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응시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저도 선택형은 응시를 못한 경우가 매우 많았고, 나중에는 지쳐서 선택형 강의는 수강하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선택형 강의는 대부분 혼자서 하면 된다는 유혹 때문에 사례형 강평만 듣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택형 강의도 가급적 따라갈 것을 권합니다. 선택형 강의를 듣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택형 강의까지 제대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 때는 필기를 하지 않고 강사분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만 별도 체크만 하는 방향 등으로 스스로 공부량을 타협을 하여 수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도 2순환과 마찬가지로 기록형 실전연습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민사기록형의 경우 복잡한 사실 관계에 시달리며 3시간동안 시험을 보고 1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강평까지 듣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수험기간을 통틀어 기록형을 시간내에 작성하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응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 Advice : 4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임한 시기이자, 월비스 한림법학원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선동주교수님께서 진도별 모의고사 첫 수업시간에 “이 시기가 1년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 때 실력을 완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셨을 만큼 3순환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적의 시기입니다. 저는 3순환부터 학교 수업을 듣지 않고 월비스 한림법학원에서 7법을 다 수강하였으며, 스스로 단 한 번의 결석도 하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시기적으로 눈은 오지 않았습니다ㅎㅎ), 아무리 힘들어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3순환 과정을 매일 출석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를 풀고, 곧장 강평을 듣고 틀린 부분 및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강의를 끝나고는 저녁 식사 전까지는 틀렸던 당일 시험범위를 리뷰하고 보충하였으며, 저녁 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시험 전까지는 그 다음날 시험 범위의 암기장을 다시 읽고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암기장조차 제대로 정리된 것이 없었습니다. 매일 치러지는 어려운 시험에 위기감을 느끼고, 하루 시간을 세세하게 쪼개서 암기장을 정리 및 단권화 하는 작업까지 병행하였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 이 과목이 끝나면 저 과목이 곧장 시작되는 폭풍처럼 몰아치는 기간인지라 무척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지만, 잠을 줄여서라도 다음날 시험 범위를 공부하였습니다. 결국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니 저에게는 제대로 정리된 암기장과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